

## 우리군의 파병이 양국의 우의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무스타파 파타 키루쿠크 주지사 접견 다과회 중 말씀

무스타파 지사님, 왈리 의장님, 함께 온 의원 수행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한국의 초청에 응해 자이툰 부대 창설식에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국국민에게 신뢰와 우호적 감정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은 파병을 결정해놓고 파병 병사들의 안전에 대해 많은 불안감을 갖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지사 일행이 한국을 방문해서 호의를 베풀어준 것은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 준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 부대의 파병 목적에 관해서는 여러 동기와 그에 따른 추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부대가 이라크와 이라크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릴 것이고, 양국의 상호 우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이라크와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고통 받고 있을 때 한국에 온 외국군대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 군대의 주둔 목적과 정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50년이 지나면서 결국은 상당한 안정 위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외국 군대 주둔에 의해 국가발전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파병된 다른 나라의 군대들도 이라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우리 한국군 부대는 특별하게 잘 할 것입니다. 왜

나하면 한국은 이라크와 유사한 역사적 상황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거치면서 성공한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고, 그동안 UN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에 파견돼서 훌륭하게 일했다는 평가받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